

## 48개 지방노동청을 통해 고용평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상담을 지원하고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

### 1. 관련 기사

- 4.2.(화) 한겨레(인터넷), 직장 성희롱 상담 ‘직접’ 한다더니...인력도 못 구한 정부

### 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가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

- 전국 48개 지방노동청을 통해 초기상담을 지원하고 8개 권역별 대표(지)청에는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\*하여 복잡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 모색, 법적 쟁점 검토, 사건 접수 및 조사 연계,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

\* 상반기 8명 채용 계획 인원 중 7명 채용 완료, 하반기 채용 인력 8명(+미채용 인원 1명)은 앞당겨 채용 공고 진행 중

- 기존 상담 중 대다수(91.4%)가 비대면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대표 상담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담 편의성도 개선하였음

\* · 전화 1551-9811 · 온라인: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 내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서비스

- 특히, 기존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되는 딱딱한 사건 조사가 아닌,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한 상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매뉴얼 제작, 사건 유형별 대응 방식 교육 등 각별히 관리하여,

- 진정 등으로 연계\*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권리구제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축적되고 있으며, 향후 상담사례집 제작·배포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겠음 \* 2월말까지 성희롱 관련 상담 97건 중 23건 진정 연계

· 사업장 자체 해결을 원하는 근로자의 상담 요청 → 사업장 고충담당자에게 객관적 증거수집 방법 등 모색 지원 및 사업장에 신청인을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등을 안내 → 사업장 사실관계 조사 착수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유리 (044-202-7720)
		담당자	사무관	손우진 (044-202-7728)